



〈달걀부침을 만드는 노파〉-1618년, 캔버스에 유채, 100*119,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소장

시대를 앞서갔던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화가다. 그는 이탈리아 미술을 찬미했지만 이탈리아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의 화가들과 달리 르네상스의 아카데미 규범을 결코 따르지 않았다. 그는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의 주제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었다.

벨라스케스는 세비야의 하급 귀족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12세 때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세비

야에서 유명했던 화가 프란시스코 파체코 의 도제로 들어간다. 파체코는 재능은 평범했지만 미술 이론에 정통해 귀족들과 교분이 두터웠다. 그는 벨라스케스의 재능을 보고 딸 후아나와 결혼시킨다. 벨라스케스는 19살 후아나는 16살이었다.

장인 파체코는 벨라스케스를 사위를 맞아한 것이 기뻐 그에게 집 2채를 지참금으로 주었을 정도였다. 아내 후아나는 아버지의 지참금 외에 할머니의 유산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 결혼하기 전 벨라스케는 아버지의 집에 얹혀사는 신세였으나 장인어른 덕분에 결혼생활을 부자로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었다. 그는 인두세 면제 특권 상속을 신청해 면제 판결을 받았다. 또한 파체코는 사위의 재능을 알리기 위해 친분을 이용했다.

벨라스케스에게 화가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세상에 알려준 것이 보데곤이다. 보데곤은 술집이나, 식당, 음식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생활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말하는데 서민들의 일상을 통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알레고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벨라스케스는 1617년부터 1622년 사이에 9점의 보데곤을 그렸으며 대표적인 작품이 〈달걀부침을 만드는 노파〉다. 이 작품은 17세기 스페인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컴컴한 부엌 안에서 머리에 흰색의 베일을 쓰고 있는 노파가 숯불에 얹어진 질그릇 앞에 앉아 달걀을 부치고 있고 옆구리에 멜론을 끼고 한 손으로는 포도주병을 들고 있는 소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노파 앞 탁자에 도자기로 된 기름병과 낫쇠로 된 그릇, 나이프가 놓여 있는 사기 접시와 야채가 있으며 기둥에는 주방기구들과 바구니가 걸려 있다.

당시 서민들이 고가의 달걀부침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달걀을 부치고 있는 것은 여관 주방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파는 손님들의 식사를 담당했던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를, 소년은 심부름꾼을 의미하고 있으며 소년이 들고 있는 멜론은 십자가 형태의 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끈 위에 왕권을 상징하는 부주를 달았다.

베일 아래의 야윈 노파의 얼굴을 엄숙하게 표현한 것은 당시 게으른 하녀의 이미지보다는 품위 있게 살아온 인생을 나타낸다.

노파에 손에 들고 있는 달걀은 당시 모든 현세적인 것은 무상하며 죽음 너머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암시하는 상징물이며 또한 노파와 소년을 대비시킨 것은 삶의 덧없음을 나타낸다.

벨라스케스가 19살 때 제작한 초기작품으로 당시 배경을 충실하게 묘사한 네덜란드 부엌 그림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낫쇠 그릇의 광택,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기름, 나무젓가락, 바구니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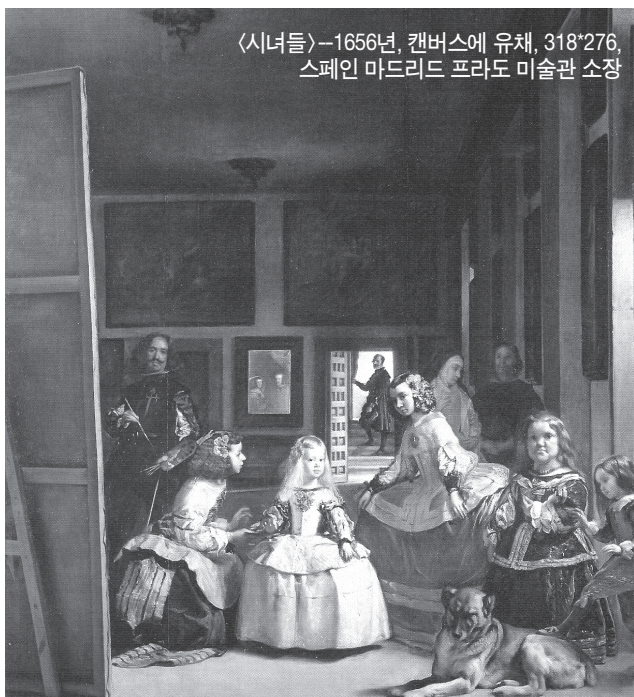
벨라스케스는 종교화에 전념하라는 장인 파체코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초상화라고 생각했다. 초창기 벨라스케스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던 민중을 모델로 쓰기도 하면서 20세에 벌써 걸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한다. 그의 그림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동시대 화가들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벨라스케스는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가기 위해 마드리드로 이주한다. 마드리드에서 훌륭한 후원자를 찾아 기반을 잡고 싶었던 것이다. 1623년 펠리페 4세는 벨라스케스를 궁중화가로 임명한다. 그의 주요 임무는 펠리페 4세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벨라스케스는 왕의 욕구에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모델들의 사회적 지위를 충분히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냈다. 벨라스케스가 그린 스페인 왕가의 초상화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벨라스케스가 궁정의 일상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시녀들〉이다. 화면 왼쪽 팔레트와 붓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벨라스케스다. 작업실로 꾸민 알카사르 궁전의 한 방 안에서 대형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벨라스케스가 화면 전면에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궁정화가로서 자신의 활동과 화가로서 독자적인 창조자로서 자신을 찬미하기 위해서다.

화면 중앙에는 왕위 계승자인 마르가리타 공주가 드레스를 입고 벨라스케스를 외면한 채 서 있다. 마르가리타 공주는 펠리페 4세의 딸로서 당시 4세다. 펠리페 4세는 1649년 두 번째 부인 마리아나와 결혼을 했다.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펠리페 4세는 첫 번째 아내와의 태어난 자식을 모두 잃었고 국왕 부처에게 마르가르타 공주는 유일한 자식이었다.

왕비의 시녀 도나 마리아 서르미엔토가 무릎을 꿇고 붉은 도자기 잔인 부카로에 담긴 물을 공주



에게 건네고 있고 시녀 도나 이사벨 데 벨라스코는 공주의 뒤에 서 있다. 그녀 뒤로 희미하게 서 있는 사제와 수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화면 오른쪽 검은 색 드레스를 입고 일그러진 표정의 여자 난쟁이 마리 비르볼라가 있다. 여자 난쟁이의 뚱뚱한 몸과 어린 마르가르타의 공주의 몸과 비교되고 있다. 그녀 옆에는 남자 난쟁이 니콜라시코 페르투사가 즐기고 있는 개의 등에 발을 얹어 놓고 있다.

당시 펠리페 4세는 난쟁이, 어릿광대를 무척 좋아해 곁에 두었다. 국왕의 충애를 한 몸에 받았던 난쟁이는 왕실의 유흥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민심을 국왕에게 전달하는 일도 했었다. 이 작품에서 두 난쟁이의 화려한 옷차림은 비천한 신분이지만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작업실 뒤편에는 대형 그림이 두개가 걸려 있는데 벨라스케스의 사위 마소가 루벤스의 작품을 모방한 그림이다. 그림 아래 검은 색 프레임으로 된 거울에는 펠리페 4세 내외의 모습이 보인다. 거울 오른쪽 출입구 옆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왕비의 시종 호세 니에토가 서 있다.

미술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은 거울 속의 국왕 내외의 모습이다. 이 작품은 실제로 펠리페 4세가 국왕 내외가 그림의 모델을 서고 있는 마르가르타 공주를 위로하기 위해 작업실을 찾았던 일상을 그린 것이지만 화면 속에서는 국왕 내외는 거울 속에만 있다.

당시 스페인의 궁정 회화에서는 부부의 초상화는 거의 그리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벨라스케스는 국왕 내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거울 속의 국왕 내외를 빗으로 둘러싸인 모

습으로 표현했다. 빛은 군주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거울은 지혜를 상징하는 도구다.

이 작품에서 그의 가슴에 그려진 붉은색 십자가는 성 야고보 기사단의 문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벨라스케스는 이 작품을 제작하고 2년 후에 펠리페 4세에게 기사단의 문장을 받았다. 기사단 문장을 받고나서 훈장을 덧칠했다.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을 펠리페 4세는 높이 평가했지만 당시로서는 예절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 방식이었다.

이 작품에 매료되었던 고야, 드가, 마네, 달리, 피카소 등 근, 현대의 수많은 화가들이 작품을 내놓았다. 특히 파블로 피카소는 58점의 연작을 통해 이 작품을 재해석 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는 평생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직위를 쌓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화가들을 경계해 주변의 화가들을 너그럽게 봐주거나 재능 있는 화가를 키우지 않았다. 자신만이 스페인 왕가의 초상화를 담당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벨라스케스의 정치성은 당시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의 높은 지위 때문에 반대하지는 못했다. 그는 기사단 제복을 펠리페 4세에게 하사 받을 정도로 평생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벨라스케스는 수석궁정화가가 되었다고 해서 예술가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궁정에 매여 있어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펠리페 4세의 후원 덕분에 그토록 원하던 이탈리아를 방문할 수 있었다. 또한 벨라스케스는 두 번째 이탈리아 방문에서 펠리페 4세를 위해 미술품 구입은 물론 외교관으로서 활동도 했다. 외교관으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이탈리아 여행은 벨라스케스에게 예술의 재발견이라는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벨라스케스는 이탈리아 미술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 주었다. 그의 예술성은 당대에 스페인에서만 알려졌으나 후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